

전국 교정시설, 추석맞이 교화행사 및 불우수용자 지원 -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 -

- 법무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합니다.
 - 이번 교화행사는 ‘가족사랑의 편지’, ‘가족만남의 시간’, 조상을 기리는 ‘합동 차례’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됩니다.
- 이와 함께, 여러 단체의 따뜻한 손길로 전국 수용자들은 추석 명절의 온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
 -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과일, 송편, 다과 등을 기부받아 전 수용자들에게 나누고, 특히, 육아용품을 기부받아 수용자인 엄마와 유아를 격려하였습니다.
 - 또한,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으로부터 5,500만원, 교정위원중앙협의회로부터 1,500만원 등의 성금을 기부받아, 보관금이 없는 2,000여 명의 불우수용자를 지원하였습니다.
- 한편,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거창구치소를 비롯한 여러 교정기관에서는 수형자, 직원, 교정위원으로 구성된 ‘보라미 봉사단’을 통해 농번기 농촌 사회에 일손을 보태는 등 지역사회의 온정에 보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“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해 수용자들이 과오를 반성하고,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, 명절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정사고 예방 등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습니다. ☑

담당 부서	교정본부 사회복귀과	책임자	과 장	허만혁 (02-2110-3418)
		담당자	교정관	서기동 (02-2110-3437)





▲ 대구교도소 추석맞이 송편 기부



▲ 보라미 봉사단 사진